

[제보자2]

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

오봉남(男·78)

어떤 사람이 아홉 번 과거에 낙방을 하고 ‘에이, 이제 살앙 무신 거 하겠냐’고 막 낙심하고서는 목메영 죽젠 나무에 베를 메달앙 죽을랴고 흘 쯔에 어떤 백발을 훈 노인이 나타남 훈는 말이

“아, 사름이 병들영 죽기도 설러워 훈거든 사름이 어떻 목메영 죽젠 훈느냐?”

고 말이지

그 사름이

“아, 어떤 노인네가 지나는 길<sup>1)</sup>이나 갈 것이지, 나는 그만한 소연<sup>2)</sup>이 잇어 죽을랴고 훈다.”

고 하니

“무슨 이유냐?”고 하니

“난 이러 이러 허여 세상을 살아도 흥미 없으니까 죽을랴고 훈다”

고 하니

“그러지 말고 내일 특과(特科)가 잇으니까 내일 가민 풀림어시 등과할 것이다.” 말이며.

“소실 이렇게 이렇게 허영 큰 종이에 자그만 글자를 썬 빙허게 돌리면서 무슨 자냐 물을 거니까, ‘매연(薦)자라 훈민 풀림어시 등과할 것이다.’

그렇게 해서 그 노인이 간 데 어서. 그 노인이 그대로 이서시믄<sup>3)</sup> 그 말을 안 들을 건디, 인멸 불견 간 되가 어시니 촌말 이제 신선이구나 하고 북향사배하고 직시<sup>4)</sup> 달려갔지. 달려강 보난 과연 특과가 잇더라.

그래 거 뭐 지꺼진<sup>5)</sup> 거지. 백발백중 이견 믿어논 것 아니라게.(웃으며)

영<sup>6)</sup> (손짓) 돌리멍 무슨 자냐 묻은 거지. 그 노인이 말헐 때 빙허게 돌릴테니까 ‘매연’자라고 허라 하니까는 빙허게 돌릴테니까 돌릴 생각이 문저 떠올라 분거지. 그러니까 그만 ‘빙빙 연’자라고 얘기를 훈거라. 당최 ‘빙빙 연’자엔 험 말은 해보도 안 해신디 빙허게 돌린다 험 것에 그만 아주 기뻐부니까 그렇게 훈거라.

‘빙빙 연’자라고 허니까 그렇게 해독을 허니까 누게가<sup>7)</sup> 잘 됐다 못 됐다 하기 전에 저도 풀린

1) 길

2) 사연(事緣)

3) 있었으면

4) 즉시

5) 기쁜

6) 이렇게

7) 누가

건 알거든.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애긴 하고 보니 잘못 얘기 한거라.

‘아, 이젠 안됐구나’ 허영 가젠 멧 자국 안 가니까 어튼 선비가 돌려가고 잇드라 이거야. ‘뜰림  
어시 이 선비도 과거보레 오는 선비구나 나는 이왕 안됐지마는 이 사름이라도 도와주자 말이야.  
도와주자.’ 해서 이 선비보고 이제 이리이리 얘기 하면 뜰림어시 될 것이다하니

“어째서 그렇게 알면서 그냥 나오느냐?”

하니까, 소실 얘기를 “나는 ‘매 연’자라고 흘 것을 갑자기 ‘빙빙 연’자라 했기에 안 됐거고, 뜰  
림어시 ‘매 연’자라고 하면 등과헌다”

그러니까 그 선비도 그러면 조금 기둘리라 하고 가서 “먼 되서 오는 것이 시간이 좀 늦었습니  
다” 하니까, 그러냐고 “무슨 자냐?” 하거든

거 침착하게시리<sup>8)</sup>

“예, 서울말로 아뢰리까 시골말로 아뢰리까?”

그러니까 거 무슨 소리냐고

“서울말로는 ‘매 연’자올시고, 시골말로는 ‘빙빙 연’자올시다”

고 하니까,

“아, 그러냐”고 “아까 그 시골선비 부르라”고

그래서 둘이 동시에 과거를 했다는 거주.

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, 『국문학보 제11집』, 1992, pp.227-228.

---

8) 침착하게